

질병예측자료로서 四科 · 四類形象의 의의와 미병진단적 가치 연구

김종원 · 전수형 · 이인선 · 김규곤¹ · 이용태 · 김경철 · 엄현섭 · 지규용*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1: 전산통계학과

Study on the Meaning of Four Subjects and Four Species as a Disease-Prediction Data and Diagnostic Value on Ante-Disease

Jong Won Kim, Soo Hyung Jeon, In Seon Lee, Kyu Kon Kim¹, Yong Tae Lee, Kyung Chul Kim, Hyun Sup Eom, Gyoo Yong Chi*

Colleg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1: Department of Computation Statist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In Korea, medical diagnostic equipments and biochemical examination can not be used in order for diagnosing sub-healthy state or ante-disease state in oriental medicine clinic. So morphic analogical method used in oriental medicine can be a good tool as a disease-predictable signs in order to enable preventive diagnosis and therapy. Therefore the four geometrical subjects; Essence, Pneuma, Spirit, Blood(四科; 精氣神血) and the four taxonomical species; Pisces, Quadruped, Aves, Carapaces(四類; 魚走鳥甲) are chosen as morphic models in this paper. The differences of two classifying methods with four subjects and four species were as follows. The diagnostic category was meta-medical and synthetic against medical specific. The diagnostic object was body in contrast with face. They were able to be applicant in psychology and class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gainst diagnostics and therapeutics directly in oriental medicine. The theoretical basis was basic diagrams of four unit-fluids of body and morphological analogy with four animal species respectively. And the therapeutic aims were systemic pathogenesis following five phase theory against congestion and deficiency of Essence, Pneuma, Spirit, Blood. The four subjects and four species are mixed each other practically in clinic. But it should be used limitedly because of the above reasons described and must divide the principal and secondary factors and follow the pathology of principal shape factor. In order to improve the diagnostic value of ante-disease state, the discriminable standards, measurement methods, limit of interrelating interpretation and the criteria of abnormal disproportion were needed to be defined more clearly in advance.

Key words : ante-disease(未病), four geometrical subjects, essence, pneuma, spirit, blood, four taxonomical species, pisces, quadruped, aves, carapaces, morphic analogy(형태적 유비)

서 론

한의학에서 서양의학의 조기진단과 예방의학적 치료에 대응하는 학문으로 未病學이 부상하고 있다. 未病學은 未病 단계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므로 未病에 대한 인식과 진단방법으로 구성되며 治未病學은 그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 <內經>에도 등장하는 미병개념은 오래 전에 확립되었지만 未病을

* 교신저자 : 지규용,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gyu@deu.ac.kr, · Tel : 051-850-8659

· 접수 : 2009/02/19 · 수정 : 2009/03/13 · 채택 : 2009/04/08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의미있는 치료방법과 연계하는 데는 서양의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진단기술이 발전하고 단백질칩 등의 신의료기술이 의학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과 관계가 깊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四診診斷法에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을 수집하여 辨證해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潛病段階에서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의 한의 임상에서는 영상진단방법을 임의로 쓰기 어려우므로 서양의학에서의 예방의학적인 형태로는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

한의학에서 미병학적 진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리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들을 일반적인 일종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의성 있는 차이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수단과 이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서양의학의 일반적인 이화학적 검사방법들도 질병에 도달하기까지 정상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 그러므로 서양 현대의학에서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과 치료 가능성 등을 계산하고 예방적 의료에 활용하는 방법이 그들의 미병학적 추구목표이다.

그러나 한의학의 경우 이러한 미시적 의학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육안적 거시수준에서 潛病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가능한 방법은 질병을 형성하는 根因이 되는 인간의 다양한 氣質의 偏差를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질적 편차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李濟의 언급을 참고하자면 體形氣像과 性質, 恒心, 容貌詞氣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법이 없어 진단자료로 삼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적용하기 쉬우면서도 측정 가능한 것으로 面形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잠병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대안이라 생각하였다.

面形을 주로 언급하는 芑山形象醫學에서는 양의분류인 膽體, 膀胱體와 男女分類 외에도 네 가지 분류인 사과와 사류의 이론이 있고 五臟形과 六經形 등의 다양한 類型(pattern)에 따라서 임상적 의의를 부여하고 질병예측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며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러 분류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未病에 대한 진단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 중 四科와 四類理論을 비교고찰하면서 내용과 진단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론

1. 四科와 四類 分類의 기원과 의의

芑山の 形象理論에 의하면 사람의 類型(pattern)은 四科와 四類로 나뉜다. 四科는 精科, 氣科, 神科, 血科를 말하고 四類는 魚類, 走類, 鳥類, 甲類를 말한다. 박¹⁾은 魚走鳥甲類란 사람의 형태, 행동, 기능, 성질 등에서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 그 특성에 따라 魚走鳥甲의 동물류에 비유한 것이고, 精氣神血科는 인체의 근본요소인 精氣神血을 고유한 종자에 비유할 수 있는 얼굴 모양별로 분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四類는 다른 동물류와의 形態的 類比的 구조이고 四科는 얼굴의 형태형성이론임을 알 수 있다.

魚走鳥甲類의 기원은 <素問·五常政大論>에 등장하는 五蟲에서 찾을 수 있다²⁾. “帝曰, 三氣之紀, 願聞其候. 岐伯曰, 悉乎哉問也. 敷和之紀, 木德周行, 陽舒陰布, 五化宣平, 其氣端, 其性隨, 其用曲直, 其化生榮, 其類草木, 其政發散, 其候溫和, 其令風, 其藏肝, 肝其長清, 其主目, 其穀麻, 其果李, 其實核, 其應春, 其蟲毛, … 升明之紀, 正陽而治, 德施周普, 五化均衡. 其氣高, 其性速, 其用燔灼, 其化蕃茂, 其類火, 其政明曜, 其候炎暑, 其令熱, 其藏心, 心其畏寒, 其主舌, 其穀麥, 其果杏, 其實絡, 其應夏, 其蟲羽” 등이 그것인데 이는 五運의 平氣年에는 각 해마다 서로 다른 化生作用이 발생하며 그 작용의 차별성에 의해 상응하는 性質과 氣化 및

作用이 발현되고 과일과 곡물과 동물들도 발육한다는 것이며 太過하거나 不及한 해에는 관련되는 物象들이 해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각 三五分紀에 해당되는 종류 중에서 인간이 속해있는 裸蟲을 제외한 毛蟲, 羽蟲, 介蟲, 鱗蟲이 각각 四類 중의 走類, 鳥類, 甲類, 魚類에 해당한다. 토는 편벽된 성질이 가장 적은 데다 인간이 속해있는 裸蟲은 편중된 특질을 나타내고자 하는 類型分類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四類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중에 특히 대비되는 신체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며, 주로 발달된 기관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 주요한 신체기능과 편중된 氣質이나 嗜好를 중심으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四類는 全身에 표현되는 형태적 類比推理의 논리(taxonomical)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는 특히 눈이 발달하여 잘 보고 웹 없이 재잘거리는 특성이 있으며, 물고기는 입이 볼록 나와 입맛이 발달해 있으며, 네 발 짐승은 코와 다리가 길어 냄새를 잘 맡고 잘 달리며, 거북이는 귀와 등이 발달하여 잘 듣는다. 흔히 四類의 이러한 특징들은 열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³⁾는 四科에 대해 낱알의 요소를 모아 일정한 질서를 가진 통일체로 만드는 組織原理에 따라 구분한 人身의 종자개념이며 태극·음양·四象으로 나타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四類를 천지자연으로부터 成形原理에 따라 생성된 類概念이며 太極·兩儀·四象으로 나타냈다고 한 언급과 대비된다. 여기서 조직원리란 成形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는 뜻이고, 精氣神血이 각각 구성원소, 즉 種子로서 일정한 비율로 中和하여 그에 따른 특성을 갖는 생명체를 형성한다는 의미이며, 陰陽이라 한 것도 對待的 運動과 化生이라는 兩儀의 작용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반면에 兩儀는 陰陽이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總體를 지칭한 것이고, 魚類나 鳥類와 같이 동물 種마다의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成形原理라 한 것이다.

김⁴⁾ 등은 精氣神血科의 성립근거에 대해 단위유체모델을 사용하여 추론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운동특성과 성질이 서로 다른 유체를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유체가 작용하는 신체 모든 부위와 기관에도 陰陽動靜의 편차를 일으키게 되고 外形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유체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굴은 인체에서도 三陽經이 분포하고 陽이 가장 성하여 유체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므로 얼굴의 입체도형적 형상을 위주로 四科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四科와 四類는 판단기준과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四科이론의 질병예측과 임상활용

芑山은 精氣神血科의 형상이 각각 河圖 洛書 伏羲 文王之이치와 형상을 본떴다고 하였는데 이는 얼굴 모양이 각각 圓形 方形 逆三角形 三角形인 것을 상징한이지 河圖나 洛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圓, 方과 三角形은 모든 도형의 기본형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을 조합하면 相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얼굴모양을 造形할 수 있고, 역으로 모든 얼굴은 이들 네 가지 형상의 類型(geometrical patter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形은 항상 그 內部에 가득 차있는 氣라는 流體의 運動을 통하여 유지되고 변화하며 또한 역으로 정해진 形態에 의하여 氣의 운동이 한정된다. 이를 形氣相應이라 하는데 <靈樞·壽夭剛柔>를 보면 “…形有緩急 氣有盛衰 骨有大小 肉有堅脆 皮有厚薄 其以立壽夭奈何? 伯高曰 形與氣相任則壽 不相任則夭. 皮與肉相果則壽 不相果則夭…形充而脈堅大者 順也 形充而脈小以弱者 氣衰 衰則危矣 … 此天之生命, 所以立形定氣而視壽夭者. 必明乎此, 立形定氣, 而後以臨病人 決死生. 形氣之相勝以立壽夭奈何? …平人而氣勝形者壽 病而形肉脫 氣勝形者死 形勝氣者危矣”라 하여 形과 氣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池⁵⁾도 <周易>의 擬象制器論과 함께 <內經>의 無器不有論이 形氣相應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推廣하고 인체의 특질을 진단하는 유용한 방법이라 제시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病例를 가정할 수 있다. 급성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精神氣血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한 병인과 병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발생이 특정한 병인과의 관련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진단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경우라면 治법을 論定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때 氣運動의 경향성과 친화성을 바탕으로 병인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예컨대 <素問·五運行大論>에 “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한다 하고 <素問·五藏生成>에는 “靑脈之至也 長而左右彈有積氣在心下支脈 名曰肝瘕 得之寒濕 與疝同法 腰痛足滿頭痛”이라 하여 특정 병인들이 각기 親合하는 부위가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다만 여기서의 氣는 形體의 對語로서 流體를 通稱하는 것이며 따라서 精氣神血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金⁴⁾ 등의 논지를 포함하여 일련의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 얼굴의 형태형성은 내부에 존재하는 流體인 精氣神血의 운동특성과 관련되며 네 가지의 형상 기본패턴 및 이의 결합된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기본형은 圓形, 方形, 역삼각형, 三角形이다. 또한 流體의 특성상 유연한 곡선을 그리므로 정확한 方角을 이루지는 않으며 대개 圓方과 角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임상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형태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면 血科의 삼각형은 임상적으로 아래가 넓은 타원형인 경우가 많고 神科는 위가 넓은 타원형이 된다.

精科의 얼굴은 圓形이다. 圓은 꼭짓점이 없어 내부의 유체가 가운데로 응집되므로 정체하기 쉽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운동하는 질점 특성에서는 圓이 능변하며 원활하게 轉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원형인 얼굴을 가진 사람이 太過하거나 不及한 병리현상이 발생하면 精의 鬱滯와 敗濁, 혹은 夢泄이나 滑脫이 일어나게 되며 혹은 精竅와 水道가 錯亂하여 白淫이나 小便白濁 등이 생기게 된다. 이를 임상에서 관찰해 보면 精液의 病變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陰虛火動과 心動悸 등의 心腎不交病理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氣科의 얼굴은 四角形 혹은 마름모꼴인 菱形이다. 이러한 方形은 네 꼭짓점이 내부압력을 均排하는 突出역할을 하므로 내부

의 流體가 四方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走而散布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사방으로 散布하는 것은 氣의 성질에 속하므로 方形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氣科形이라 하는데 내부 유체, 즉 氣의 양이 부족하게 되거나 반대로 태과하면 氣가 고루 發散하지 못하고 鬱滯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임상적으로는 少氣, 氣虛, 下氣, 短氣 등과 七氣 혹은 九氣, 上氣, 中氣, 氣逆, 氣痛, 氣滯 등의 병증이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氣科形의 병리는 梅核氣와 같이 氣의 出入과 疏通障礙에 관련된 증상들이 주로 관찰된다.

神科의 얼굴은 逆二等邊 三角形이다. 內部流體의 거동은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므로 氣는 하방으로부터 上方의 넓은 부분으로 향하여 浮升하는 경향을 띤다. 이처럼 輕清하여 親乎上하며 欲達하는 것은 重力방향과 반하는 무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는 神明의 특성과 부합하므로 이러한 얼굴 모양을 神科形이라 한다. 神明은 밝게 알고 情緒를 주관하므로 역삼각형의 얼굴은 認知能力과 情志活動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神明의 작용이 태과하게 되면 痰火가 치성하거나 七情이 울결하게 되고 心血이 부족하면 神明이 부족하고 神昏도 불안하게 된다. 이를 임상에서 관찰해 보면 주로 驚悸, 怔忡, 健忘, 癲癇, 癲狂 등의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血科의 얼굴은 正立한 삼각형 혹은 아래가 넓은 계란형이 많고 혹은 가름한 타원형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내부의 流體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의 넓은 부분으로 모이며 安定하는 경향을 띤다. 이처럼 質重하여 親乎下하며 하방으로 모이고 卵圓形을 형성하는 것은 液性 유체인 血의 특성과 부합하므로 이러한 얼굴 모양을 血科形이라 한다. 따라서 血科의 이상상태는 血이 비록 전신을 순환하는 것이 生理이지만 下에서 안정하지 못하고 內部에 싸여서 간직되지 못할 때 형성되는데 이로써 不及과 太過의 병리가 발생한다. 不及은 血不充으로 인하여 血虛眩暈과 같은 병기와 증상을 만들고 太過는 血의 留滯를 일으켜 瘀血이 되거나 혹은 각종의 출혈증을 일으킨다.

3. 四類分類에 의한 질병예측과 임상활용

四類는 인체와의 형태적 유비로부터 분류된 개념이므로 인류 환경인 육지와 바다, 공중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종인 魚類와 走類, 鳥類, 甲類를 선정하여 인체와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적 유비는 생리적 특질과 장부대소, 행동특성과 기질, 감정과 병증 등에 대해서도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므로 인체의 관련 특성을 분석하는데 응용된다. 네 가지 동물종이 갖는 구조적 특징은 위에서부터 인체의 등, 가슴, 배, 허리의 네 부위와 유비되고 생리 기능상의 특징은 차례로 耳目鼻口의 네 기관과 유비되며 동물 자체의 행동특성은 인간의 행동과 기질에 유비하여 해석한다.

먼저 魚類는 비늘이 많고 물속으로 다니며(潛下) 이동할 때 꼬리를 먼저 움직인다. 꼬리를 움직이기 위해 허리가 발달하여 腎 부위가 크고 따라서 겁이 많아 잘 놀란다. 물고기는 대체로 입이 돌출 발달하여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으며 한랭하고 투명한 물속에 침잠해 있으므로 사물의 변화를 直感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同情하지도 않으므로 無聲無言하며 無情

하다. 그러나 물은 寒暖의 변화가 많고 그에 따라 물고기의 모습과 생태도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能變하는 덕성을 갖고 있다.

走類는 가늘고 곧으며 뾰뾰한 털(毛)이 많고 네 발로 走行하는 것이 능하다. 따라서 이동할 때는 흉복 아래에 있는 다리가(手足) 먼저 움직이며, 胸腹下에 얹혀 있는 肝이 발달하게 되고, 走類가 木性이면서 直走하는데다 多力하므로 怒情이 많다. 怒氣가 直伸하면 자연히 發聲도 크게 되며, 네발짐승들은 코가 발달되어 대체로 냄새를 잘 맡으며, 서로 간에 好惡의 情動을 다양하게 표출한다. 또한 木性이 生意를 지니고 있으며 多情하므로 仁愛하는 德性이 많으며 木性의 元德은 능히 전체를 통괄하므로 慧智가 발달한다.

鳥類는 가볍고 부드러우며 바람에 휘날리는 깃털이 많으며(羽) 하늘로 잘 날아오르며(飛上) 이동할 때는 어깨 밑에 있는 날개가 먼저 움직이게(肩先動) 된다. 따라서 어깨 밑으로 흉부에 있는 심장이 크게 발달하며 火氣가 상하여 말이 많아지고 喜情이 많이 된다. 새는 공중에서 멀리 보아야 하므로 눈이 커서 시각이 발달하며, 새가 지저귀는 것은 말 많고 喜情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곧 有情함이다. 火性의 밝음으로 조리 있게 사물을 자세히 보고 분간하므로 理智가 발달하며 질서를 잘 유지하여 禮度의 덕을 갖추고 있다.

甲類는 등에 전신을 감싸는 넓고 단단한 甲介를 가진 것으로 자라나 거북이류를 말하며 金에 속한다. 그러므로 退屈하여 땅 속에 잘 隱伏하며 情志로는 悲哀心이 많고 外界 사물과 말하는 것도 적게 된다. 이동할 때는 등(背)이 먼저 움직이게 되며 등이 발달하므로 肺가 커지게 된다. 거북이는 걸음으로 나있는 外耳가 없어 Fig. 1과 같이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 듣기는 떨어지지만 振動覺은 매우 민감한데⁶⁾ 이는 金屬의 振動과 親合하기 때문이다. 金性은 堅強하며 銳利하므로 이성을 사용하여 公義를 따라 決斷한다. 그러므로 性情으로 보면 性이 발달하고, 四端으로 보면 義貞의 덕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金甲이 外皮이고 肺耳가 위에 있으므로 내부의 知覺보다는 하늘에서 오는 靈感이 발달하게 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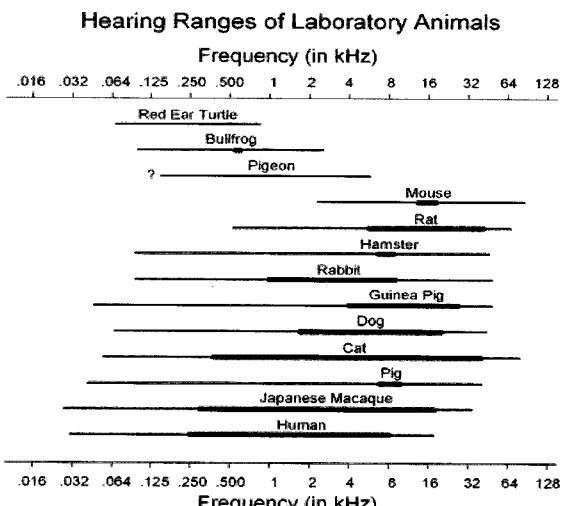


Fig. 1. The hearing ranges of laboratory animals compared with those of humans. Thin lines indicate the range of frequencies that can be detected at 60 dB SPL; thick lines indicate the range that can be detected at 10 dB SPL.

四類는 이상의 특징들을 갖추고 있어서 질병의 발생도 연관되는 장기를 중심으로 하거나 耳目鼻口의 과도한 貪着과 연관된 性情 및 情動의 치우침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의 평소 행동특성과 인지특성 및 신체 형태적 특징과 재능 등을 종합하여 체질편차와 질병의 경향성을 예측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임상에 있어서도 走類는 肝病과 筋病, 魚類는 腎病과 寒濕病, 鳥類는 心病과 神病 및 火熱病, 甲類는 肺病과 鬱氣病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四類形象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류하여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

4. 四科와 四類理論의 미병진단 방법과 가치

芝山形象醫學에서는 五行上 木은 血科와 走類에, 火는 神科와 鳥類에, 金은 氣科와 甲類에, 水는 精科와 魚類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四科가 組織原理이자 종자이며 四類가 成形原理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이고 서로 表裏關係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개념상 필연적으로 중복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精科 중에 魚類와 鳥類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장하면 魚走鳥甲類에도 각각의 精氣神血科가 있고 精氣神血科에도 각각의 魚走鳥甲類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환자의 형상패턴에 따른 질병 예측과 병리적 해석은 더욱 정교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처방도 서로 결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精科의 경우 六味地黃元이나 八味地黃元, 十全大補湯 등을 쓰는데 走類라면 四物湯이나 雙和湯을 쓸 수 있고 鳥類라면 병리상 滋陰降火湯이나 清離滋坎湯 등을 쓸 수 있으므로 脈證과 形象 및 두 形象間의 主次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선택하거나 혹은 두 영역의 方義를 결합하여 처방을 가감할 수 있다. 다만 疾病豫測을 위한 본 논문의 목적상 脈證요인은 이미 발병한 후의 일이므로 형상간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表 1).

表 1. 형상패턴에 따른 病機豫測 및 처방 例示

	精科	血科	神科	氣科
魚類	腎精不足: 六味地黃丸, 八味丸	精血俱衰: 四六湯	心腎不交: 心腎丸	精氣不足: 腎氣丸
走類	肝陰不足: 杞菊地黃元	肝血瘀阻: 柴胡四物湯	心肝火盛: 丹梔逍遙散	氣血俱虛: 八珍湯
鳥類	陰虛火動: 保精湯	清熱止血: 清熱滋陰湯	心陰不足, 心火上炎: 滋陰降火湯	解鬱清火: 七物降下湯
甲類	補肺祛癆: 紫河車丸, 凝神飲子	涼血固經: 固經丸	清肺降火: 黃芩湯, 洗肺散	肺氣虛弱: 四君子湯

한편 四類는 種 특이적인 구조 및 행동특성과 생리기능에 따라 인체의 특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meta-medical이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병예측 이전에 질병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의학적 심리학과 인간학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魚類의 병리를 腎大한 것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가 발달하고, 심리적으로는 직감이 발달하지만 무정하여 사근사근하지 않고 두려움이 많으며, 嗜好로는 입맛이 발달하고, 사회적으로는 잔재주가 많아 임기응변에 능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사상의학에서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

는 것과 유사하지만 사상적 분류패턴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부차적으로 응용될 수도 있다.

또한 유추되는 병리특성에서도 走類는 肝血과 筋病, 濕熱, 風 등과 관계되는데 이는 모두 木機能系의 계열적 질환들이 두루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濕熱은 木行의 六氣는 본래 溫이지만 手足筋病에 있어서는 습열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木行을 벗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魚類는 腎精과 寒 혹은 寒濕 등과 관련되고, 鳥類는 心神과 火熱 혹은 陰火 및 鬱熱에, 甲類는 肺氣와 臍鬱 혹은 燥痰 등에 두루 관련되어 四科理論이 주로 精氣神血의 병리로 한정하여 해석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고찰

芝山形象論에서 四科와 四類理論은 오행상 서로 交錯되므로 중복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芝山은 種子論으로 차이를 설명한다. 즉 四科는 組織原理이고 구체적인 種子概念이며 四類는 成形原理이고 추상적인 種개념이라는 것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四類는 全身에 표현되는 형태적 類比推理의 논리이고 四科는 얼굴의 입체도형적 형상을 單位流體의 성질과 운동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이 둘은 서로 진단 대상과 범주가 다르며 따라서 이론 운용에 있어서도 구별하여야 한다.

한편 四科와 四類는 外形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것이라면 五臟形은 내장의 형태에 근거하므로 四象形 분류와는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四科는 인간에게 갖추어진 얼굴의 形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四類는 陸海空에 사는 대표적인 동물중 중에서 인체 대응 구조물과의 형태적인 類比에 의해 추리된 지식이자 진단개념이므로 四類를 단순히 오장이론이나 오행론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부합되지 않는데 이러한 분류가 곧 五臟形에 해당된다.

중국의 고대천문학에서 圖形의 기본은 天圓地方이라 하여 圓과 方이 기본이지만 이것으로는 다른 여러 모양의 形象을 구성하지 못한다. 相學에서 얼굴의 형상은 대개 10가지 정도인데⁸⁾ 실제로는 오각형, 육각형 등 대칭을 이루는 다각형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형을 정한다면 이들의 조합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사각형과 圓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한편 카탈란수열에 의해 입체의 다각형($n+2$ 각형)은 n 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 카탈란 수

$$C_n = \frac{1}{n+1} \binom{2n}{n} = \frac{(2n)!}{n!(n+1)!}$$

만큼 존재한다⁹⁾.

따라서 모든 형태의 얼굴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天地形象의 기본형인 圓과 方에다가 三角形구조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圖構造와 方構造에서는 대칭이므로 유체의 운동유형이 형상을 바꾸지 않지만 삼각형은 升降의 過不及에 따라 升太過降不及하는 역삼각형구조와 降이 太過하는 바른 삼각형구조의 두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얼굴모양 분류에 精氣神血科 네 개의 형상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반면에 四類는 인간의 전신형태특징과 동물종의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본성과 신체기능, 정동, 질병경향 등의 총체적 특질과약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精氣神血의

단위유체, 즉 체내의 기본생리물질의 虛實盛衰에 의해 발생하는 병리유형 사이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분류목적과 의의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四科와 四類가 交錯되어 임상적으로 혼용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主次를 나누어 主形象의 병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表 2).

表 2. 四科와 四類理論의 차이 비교

四科(精、氣、神、血)	항목	四類(魚、走、鳥、甲)
의학적(medical, diagnostic form)	의미범주	의학 외적, 포괄적(meta-medical)
얼굴	진단대상	전신
얼굴형상에 따른 병리변화 특징에 한정	진단적 가치	인간의 신체, 심리, 생리, 병리특성 포괄
단위유체 變動의 基本形象	이론적 근거	동물종 특징과 대비되는 형태적 유비
精氣神血의 율체와 부족	기본 병리	오행상 배속된 병인과 기관의 발병
精氣神血 생리의 복원	치료 목표	태과한 邪氣의 제거 및 臟氣의 평형
입체적인 병증진단과 치료에 이용	응용	심리·기질·육기 특성과 질병경향성 분류
精: 腎陽虛, 腎氣不固, 精泄, 白淫, 小便白濁	병리, 진단적 차이	魚: 冷情敏活, 沈着, 無言, 陽虛, 寒濕, 腎虛病多
血: 肝虛, 寒滯肝脈, 瘀血出血, 肝急		走: 多情多感, 多怒, 肝病證多, 濕熱多, 筋傷
神: 心火, 痰火, 七情鬱結, 驚悸健忘, 癲狂		鳥: 變德, 多言, 興奮傾向, 心神不安, 多熱火鬱
氣: 氣鬱滯, 氣逆氣痛, 氣不足, 一切氣病證		甲: 寡默沈鬱, 緩慢, 肺氣病證多, 多痰氣鬱滯

四科와 四類 이론이 未病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인체 생명활동의 물질대사 주체인 精氣神血과 관련된 구체적인 병증들이 발현되기 이전에 병리경향과 발병가능성을 판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精氣神血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있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는 이들을 저장하는 五臟의 虛實을 脈色과 形象特徵 등으로 구분하여 간접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간접적인 해석이란 한계를 지닌다. 물론 직접적이라고 해도 精氣神血을 직접 계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의미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적어도 單位流體의 거동에 의한 형상의 형성에 근거한다는 이론적 바탕은 제시할 수 있다.

四類理論은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첫 출발이면서도 다양한 요인들, 즉 평소의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정서조절의 불균형, 외부 六氣의 편차, 부위별 臟氣 발달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池¹⁰⁾는 정상상태로부터 질병이 발생하는 데는 기의 경향성과 편중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이 四類理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偏重性은 李濟馬의 사상의학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단지 '네 가지 분류체계'라는 가짓수 때문에 혼동하거나 혼용해서는 안 된다. 두 이론은 '四象'이 차지하는 의미체계와 자격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如上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四科와 四類理論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정확한 해석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다. 미병 진단에는 정확성과 재현성이 요구되는데 그 기준이 형상이라는 구조물이긴 하지만 실제 측정 기준점이 정해져 있거나 이를 구분하는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과의 판단이 애매하고 확정적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四科가 얼굴형을 기준으로 하고 四類가 배, 가슴, 어깨, 등, 허리, 발, 털 등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론과의 연관성 때문에 결합하여 운용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임상마다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미병진단적 가치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을 확정하고 측정방법과 연관해석 등의 한계, 병적인 형상 偏重性的의 정도 판단 등을 개략적이거나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질병예측이론으로서 四科와 四類 등의 형태적 분류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未病에 대한 진단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四類와 四科는 크게 지산형상의학 체계 내에서 병증을 四象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四類는 全身에 표현되는 형태적 類比推理의 논리이고 四科는 얼굴의 입체도형적 형상을 單位流體의 성질과 운동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으로 범주와 대상 및 진단적 가치들이 서로 다르다. 四類는 인간의 전신형태특징과 동물종의 특징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본성과 신체기능, 정동, 질병경향 등의 총체적 특질과약에 중점이 있으며 평소의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정서조절의 불균형, 외부 六氣의 편차, 부위별 臟氣 발달의 차이 등의 질병예측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이라면 四科는 구체적인 精氣神血病理를 판단하는데 응용되는 이론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四科와

四類가 임상적으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반드시 主次를 나누어 主形象의 병리를 따라야 한다. 나아가 미병에 대한 진단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단기준, 측정방법, 연관해석의 한계, 형상 偏重性的의 병적인 정도판단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B070022)

참고문헌

1. 박정현, 형상의학의 이해 「魚鳥走甲類」. 의림, 308: 35-37, 2004.
2. 홍원식 교주. 정교황제내경.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pp 142-148, 1981.
3. 조장수. 형상의학의 이해-정기신혈과. 의림, 307: 70, 2004.
4. 김종원, 이인선, 김규곤, 이용태, 김경철, 엄현섭, 지규용. 안면형상연구의 인간과학적 기초 연구-정기신혈의 유체역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5):1057-1061, 2008.
5. 지규용 저. 새로운 한의학 터담기 1. 교정의서국, p 375, 2008.
6. Henry, E., Heffner Rickye, S. Heffner. Hearing Ranges of Laboratory Animals,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46(1):11-13, 2007.
7. 한규성 지음. 易學原理講話. 동방문화, 서울, pp 150-161, 1994.
8. 엄기현. 복을 부르는 관상 화를 부르는 관상.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1999.
9. Richard Johnsonbaugh. Discrete mathematics, 4th 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New Jersey, p 219, 1997.
10. 지규용. 새로운 한의학 터담기. 교정의서국, p 57, 2007.